

<오픈소스 커뮤니티 체험 보고서>

김태현

<목차>

1. 내가 선택한 커뮤니티
2. Reddit을 선택한 이유
 - 2.1. 선배의 추천
 - 2.2. 유명한 프로그램들의 업로드
 - 2.3. 외국인과의 소통
 - 2.4. 전통성
 - 2.5. 결단
3. 활동일지
 - 3.1. 첫 가입
 - 3.2. 사이트 탐색
 - 3.3. 첫 시도
 - 3.4. 작은 한 걸음
 - 3.5. 'Issue' vs 'Pull Request'
 - 3.6. ahdelron_Process-Diagnostician 제작을 위한 오픈SW 찾기
 - 3.7. 라이선스 추가해보기
 - 3.8. 번역해보기
4. 마치면서...

1. 내가 선택한 커뮤니티 : Github, Reddit

2. Reddit을 선택한 이유

2.1. 선배의 추천

나는 학회 스터디에서 선배에게 리눅스 공부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좋냐고 선배에게 묻곤 했다. 물음에 돌아오는 말은 외국인이 올린 많은 리눅스 튜토리얼을 따라 해보라는 것이었다. 또한, 선배는 Reddit 커뮤니티에 튜토리얼이 많으니 들어가 보라고 했었다.

2.2. 유명한 프로그램들의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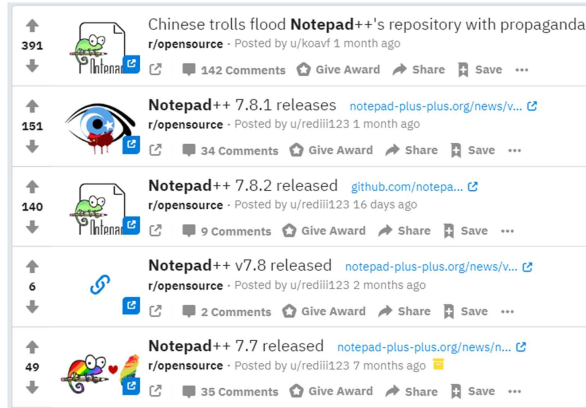


그림 1 - Notepad++ 검색 자료 (in Reddit)

선배의 조언을 듣고 REDDIT 커뮤니티에 몇 번 들어가 보았다. 그때 당시, Notepad++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의 Github 링크들이 업로드되어 있었다. Notepad++와 같은 프로그램은 내가 사용하기도 했었고 인지도도 나름 있다고 생각된다. 방문할 때마다, 내가 아는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흥미로웠고 한번 코드 리뷰도 해보고 싶을 정도였다. 대규모 프로젝트도 참여하는 커뮤니티라는 것을 알고 신뢰도 가게 되었다.

2.3. 외국인과의 소통

프로그래밍이든 그 외에 어떤 것이든 다양한 자료를 접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4. 전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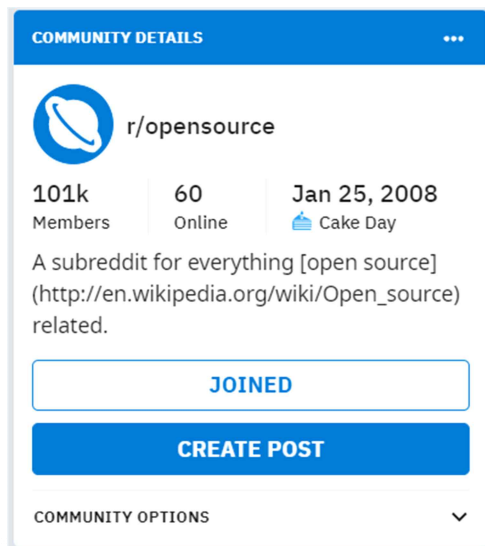


그림 2 - r/opensource 프로필

Reddit 커뮤니티는 Reddit이라는 큰 플랫폼 안에 오픈소스, 공학, 맥 등등과 같은 소주제만

을 다루는 커뮤니티들이 있다. 그 중, 나는 r/opensource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려는 것이다. 이 커뮤니티는 2008년 1월 25일에 생성되었고, 거기다가 101만 명의 구독자가 있다. 이를 보고 전통성이 있음을 느꼈다.

2.5. 결단

위의 이유를 바탕으로 Reddit 커뮤니티에서 첫 오픈소스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3. 활동일지

3.1. 첫 가입

내가 주로 사용하는 닉네임인 'ahdelron'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했다.

3.2. 사이트 탐색

처음에는 사이트를 둘러 보고 다녔다. 온통 영어로 대화하는지라 끼어들 자신감이 도통 생기지 않았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또한, 나처럼 오픈소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 한편으론 안심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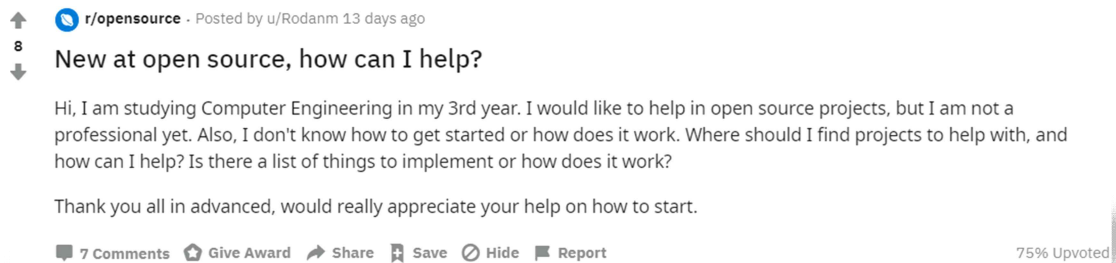


그림 3 - 어떤 뉴비의 질문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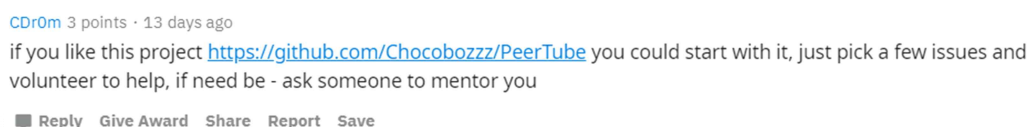


그림 4 - 뉴비를 위한 조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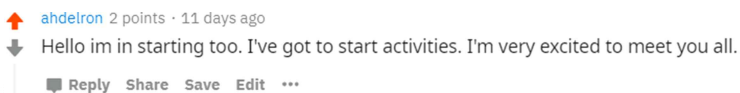


그림 5 -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는 나(ahdelron)

오픈소스 튜토리얼을 따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opensource tutorial" 키워드를 입력하고 여러 글을 검색해보았다. 오픈소스 수업 때 들은 것처럼, 생각보다 주변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아 신기했다. 댓글에 있는 깃허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은 깃허브 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깃허브에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고 느껴졌다.

3.3. 첫 시도

Chocobozz / PeerTube

Sponsor Watch 256 Star 6.2k Fork 569

Code Issues 368 Pull requests 7 Projects 2 Wiki Security Insights

Federated (ActivityPub) video streaming platform using P2P (BitTorrent) directly in the web browser with WebTorrent and Angular.

video bittorrent webtorrent decentralized p2p angular activitypub

3,708 commits 5 branches 77 releases 131 contributors AGPL-3.0

Branch: develop New pull request Create new file Upload files Find file Clone or download

Chocobozz Update changelog Latest commit e44ab4 4 days ago

Code Issues 368 Pull requests 7 Projects 2 Wiki Security Insights

Want to contribute to Chocobozz/PeerTube? If you have a bug or an idea, read the contributing guidelines before opening an issue. If you're ready to tackle some open issues, we've collected some good first issues for you.

Filters is:issue is:open Labels 43 Milestones 0 New issue

368 Open	1,301 Closed	Author	Labels	Projects	Milestones	Assignee	Sort
Warning in server logs after empty search	Type: Maintenance	#2226 opened 4 days ago by Nutomic					
Support more than 20 channels	Component: Channels Type: Bug	#2224 opened 6 days ago by MrGiga					1
CLI Tools Install Fail on Docker Image Production-Stretch		#2222 opened 7 days ago by MrGiga					4
How to set redis hostname and port for docker instance?		#2217 opened 8 days ago by agilob					1
RSS subscribe button downloads the XML file instead of opening it in a new tab on mobile	Type: Enhancement	#2216 opened 8 days ago by christophehenry					8
RFC: channel-specific transcode settings?		#2214 opened 10 days ago by yetangitu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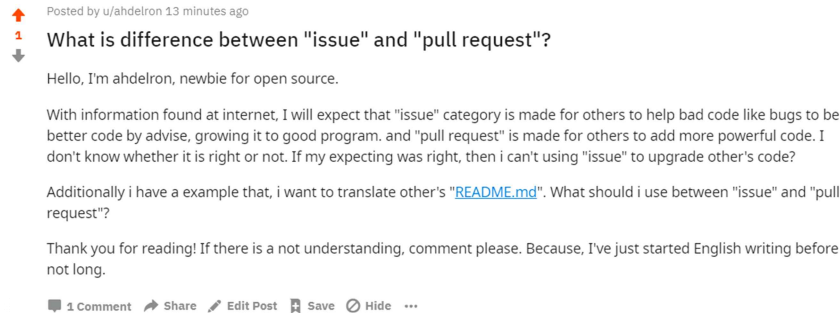
사이트 탐색을 한 다음 날에 댓글에 있던 깃허브 저장소에 기여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링크에 들어가 보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만든 것 같은 프로그램 내용과 라이선스는 내게 너무 어려웠다. 과연 내가 이 프로그램에 생기는 오류나 오차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다. 이미 다른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해놓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게 첫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3.4. 작은 한 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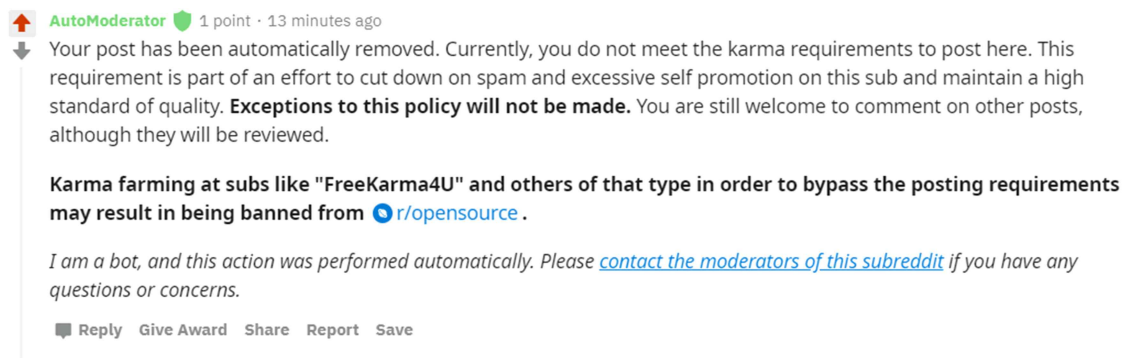
저번 실패를 바탕으로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오픈소스SW 수업 PDF에 있는 first-contributions 저장소에 기여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매뉴얼을 보면서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포크’ → ‘복제’ → ‘브랜치 생성’ → ‘변경 커밋’ → ‘푸시’ → ‘검토를 위한 제출’의 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게 첫 기여를 해낼 수 있었다.

3.5. 'Issue' vs 'Pull Requ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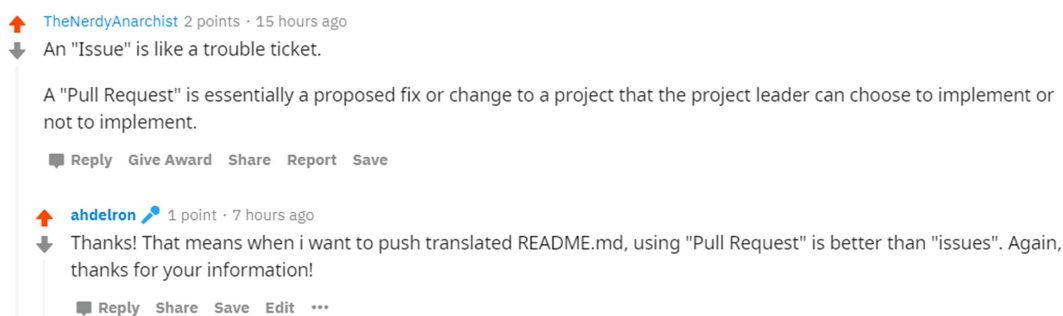
저장소의 메뉴에서 Issue와 Pull Request를 볼 수 있다. 아직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솔직히 두 개의 차이를 못 느꼈다. 둘 다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소스 커뮤니티 유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문 글을 올려보았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Issue'와 'Pull Request'의 차이를 물어보고 번역본을 올릴 때 'Pull Request'를 사용하면 되냐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Karma 부족하면 게시물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스팸 방지와 게시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데, 위기에 봉착했다. 알아본 결과, '좋아요'를 받으면 카르마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커뮤니티 주제와 상관없이 '좋아요'를 받기 위해 댓글을 왕창 달고 다녔다.



게시글 업로드가 잘 되었는지 다음 날, 답장이 왔다. 이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풀리퀘스트는 필수적으로 고치거나 바꿔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둘의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었다.

3.6. ERICA_Process-Diagnostician 제작을 위한 오픈SW 찾기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프로세스 목록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해서 그에 대한 오픈소스가 필요했다. 그래서 Reddit에서 “linux ”process“”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zps라는 프로그램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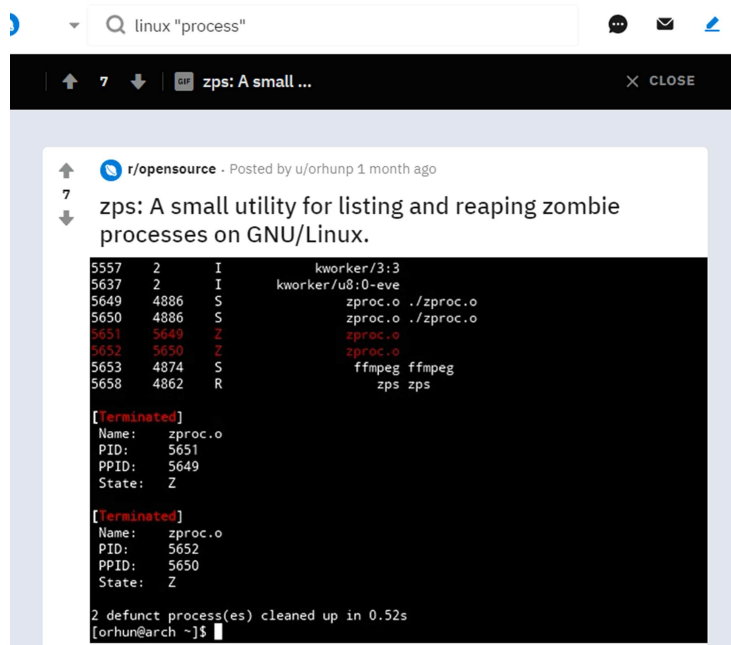


그림 7 - zps

<http://github.com/orhun/zps/>

위 링크를 누르면 zps 오픈소스 저장소가 나온다. 이 소스를 공부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다.

3.7. 라이선스 추가해보기

zps의 소스들을 사용하려 했는데 그러려면 GPL 3.0 라이선스 등록이 필요했다. 그래서 GPL 3.0에 대한 내용을 OLIS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알아본 후, 내가 사용하려는 목적이 규약을 어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았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 저장소에 GPL 3.0 라이선스를 추가하면서 zps 소스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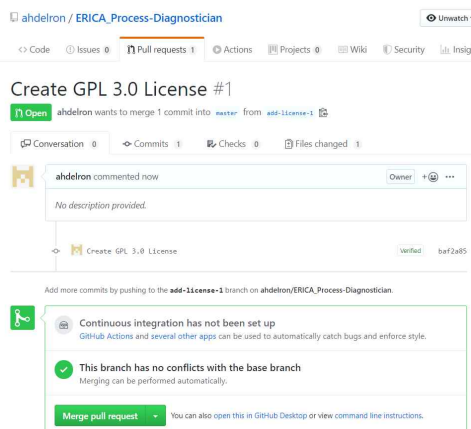


그림 8 - Create GPL 3.0 License

3.8. 번역해보기

zps의 소스들을 사용하면서, 정보 공유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번역하는 데에는 반나절 정도 걸린 것 같다. 혹시 잘못 번역하지는 않을까 원래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렇게 번역을 다 한 뒤, first-contributions 때처럼 Pull Request를 보내보았다.

add README_ko.md (Korean Version) #10

Open ahdelron wants to merge 1 commit into orhun:master from ahdelron:translation-korean

Conversation 0 Commits 1 Checks 0 Files changed 1

ahdelron commented now

Hello, Nice to meet you, Mr.orhun.
I wanted to translate your README.md to Korean, because your program is so good to introduce your program to Korean people.
So I have translated your README.md to README_ko.md.
Thank you!

add README_ko.md (Korean Version) a6a2341

Add more commits by pushing to the **translation-korean** branch on ahdelron/zps.

Some checks haven't completed yet 1 pending check Hide all checks

- Codacy/PR Quality Review Pending — Hang in there, Codacy is reviewing your ... Details

This branch has no conflicts with the base branch
Only those with write access to this repository can merge pull requests.

무엇보다 뿌듯함이 많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번역을 다 하고 나서 보니 “이게 진짜 기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orhun’님이 내 PR을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소통이라는 것의 한 발자국을 내딛은 느낌이 들었다. 지금 코드를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README.md를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인지 이해가 잘 되었고 번역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번역하는 동안에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왜 좀비 프로세스를 종료하려면 부모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하고 그 알고리즘 자체가 개선해야 할 점이라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는 곳을 보고 완벽한 작품이 아니어도 업로드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느꼈다. 걱정했던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말이다.

orhun commented 3 hours ago

Hey,
Thank you for your contribution!

1

Pull request successfully merged and closed
You're all set — the ahdelron:translation-korean branch can be safely deleted.
If you wish, you can also delete this fork of orhun/zps.

Delete branch

PR을 보낸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답장이 왔다. Merge가 된 것이다! 솔직히 거절당해도 어쩔 수 없지만, 승인받았다는 것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즐거움 때문에 오픈소스를 하는 것 같았다.

4. 마치면서...

오픈소스로 배우는 방식이 아닌 책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공부한 그 당시에만 기억이 나고 또 그렇다고 응용할 정도로 이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오픈소스로 공부하니까 예제가 훨씬 잘 만들어진 예제, 실사용이 가능한 예제를 보니까 진짜로 ‘/proc/’ 시스템 폴더가 프로세스 분석을 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는 것처럼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더 알 것 같다.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드는 생각이, 외국과의 커뮤니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느꼈고, 비교적 정모의 기회가 많은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해보면 어떨까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도 Reddit 커뮤니티와 Github을 잘 활용해서 IT 지식을 훨씬 재미있게 접근하고 싶다. **책이 아닌 오픈소스로!**